

■ 지방선거 핫코너

김장환 “입학사정관제 대비 전담팀 운영”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학생만의 개성을 살린 봉사활동, 체험학습을 비롯한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 등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부교육감 직속 조직으로 교육전문직, 겸임교원, 계약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학사정관 전담팀을 구성해 전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윤기선 “핀란드식 교실혁신프로그램 도입”

윤기선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전남의 ‘교실혁신’을 통해 교육경쟁력 세계 1위인 핀란드 교육을 넘어야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루평균 5시간 안팎의 공부시간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핀란드식 공부법’이 유일한 대안이다”며 “교사와 학생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핀란드식 교실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전남 학생의 실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남 “전남 학생들 기초체력 강화”

서기남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전남 학생들의 기초체력강화를 통해 ‘실력 전남’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체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체력은 커졌지만, 체력은 현저히 저하하고 있다”면서 “체력저하는 학업향상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의료비 부담 증가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학생인권조례 만들 것”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4·19 50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학생이 주체가 됐던 4·19 정신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타율, 차별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제 0교시,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 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장성·영암지역 찾아 민심잡기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주말과 휴일인 17일과 18일 장성, 영암 등 전남 지역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17일 장성을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장성 농협조합원 한마음 대회에 참석, 참가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약속했고, 18일에는 영암, 장성읍과 면단위를 돌며 주민들에게 “읍·면단 1개 이상의 목욕탕을 건립하고, 농촌에도 최소한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여수엑스포 성공 위해 양보 필요”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여수 엑스포터마 조성공사가 이주민과 LH공사 간 마찰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전남 여수 엑스포장에서 “덕충이주보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임시주거지와 주민소득창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원섭 “주 1회 채식급식 실시”

장원섭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주 1회 채식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이날 “2011년 자치구별 ‘주 1회 채식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채식생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2012년부터는 채식급식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수도 주 1회 채식급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집 “교육특구 실현” 등 공약 발표

김영집 민주당 남구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남구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육특구 실현을 목표로 한 교육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남구에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중등 무상급식 지원 ▲UCLA 등 해외 유명대학과 연계, 질 높은 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광주국제교육센터 설립 ▲전문고등학교의 우수 마에스터과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화 21일 선거사무실 개소

박인화 광주시 광산구 교육의원 예비후보(제 4선거구)가 21일 오후 3시 광산구 신창동 사랑방문고 2층에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갖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비리없는 깨끗한 교육환경 실현 등 주요 선거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의 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의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산구를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흥채 “무소속 연대 협의체 구성을”

임흥채 무소속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오는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을 포함한 비민주당 후보들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공식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연대를 통해 일당 독재를 해 왔던 민주당을 심판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단·속도 조절” VS “원칙에 충실”

‘한명숙 수사’ 정치권 외풍에 검찰 ‘부담 최소화’ 방안 고심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 또는 연기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외풍’과 부딪히면서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이 분분하다.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 매듭짓고 기소 또는 불기소하거나 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하는 방안 그리고 현 단계에서 아예 포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수사의 정당성이나 검찰 조직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선불리 중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의 수사에 착수한 직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수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 늦어도 이달 중에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수사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김진표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예비후보 등 야당 지도부가 18일 대략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4·19 민주유래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사의 진척 여부나 기소시점 등을 점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나 그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김모(여)씨 등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것이 뻔한데다,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 구인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번 수사를 중단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검찰의 행보를 무겁게 하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별건수사’에 나섰다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새로운 수사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내용, 일정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검찰’을 자칭하는 꼴이라며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미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된 현실을 감안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묘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화산 폭발’ 유럽 항공대란 심화

각국 공항 폐쇄 잇따라 연장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촉발된 유럽 지역의 항공 대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화산재가 북서풍을 타고 유럽 남부와 동부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 피해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각국의 공항 폐쇄 조치도 잇따라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만명에 달하는 여행객의 발이 묶이는 것은 물론이고 항공업계 역시 수익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당국은 파리 지역의 공항 3곳과 북부 지역의 공항에 대한 폐쇄 결정을 19일 오전 6시(이하 그라니치 표준시 기준)까지 연

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럽 남부에 있는 이탈리아도 북부 지역의 영공을 19일 오전 6시까지 개방하지 않겠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이는 현재 4일째를 맞은 아이슬란드 화산발 항공대란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현재 영국을 비롯해 북부와 중부 유럽의 영공이 폐쇄돼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세르비아 등 동부와 남부 유럽에도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자국 영공을 폐쇄 중인 국가는 총 20여개국이다. /연합뉴스

中 칭하이 지진 사망·실종 1796명

‘전염병 우려’ 장례식 화장 권고

중국 칭하이 위수 장족자치주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인 18일 현재 사망자 수는 1천484명, 실종자는 312명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지진재해대책본부가 밝혔다. 대책본부는 부상자가 1만2천88

명이며 이 가운데 중상자는 1천394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 등에서 파견한 구조대와 티베트 승려 등으로 구성된 민간 구조대는 이날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구조시간인 72시간이 경과하면서 구조 희망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염병 발생을 우려해 지진 현장 곳곳에서 티베트 승려들이 수백 개의 시신을 화장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위수현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신을 새의 먹이로 주는’ 티베트의 전통 장례방식인 ‘조장(鳥葬)’을 선호하지만 전염병 우려가 제기되면서 화장이 권장되고 있다.

17일 오전 위수현에서 1천여명에 대한 합동장례식이 위수장족자치주 주관으로 치러졌으며, 시신은 화장됐다. 영결식을 주도한 티베트 승려인 제미 장위는 “화장만이 유일한 방법이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MDPass and Seoul Gosihakwon, featuring recruitment for police officers and medical services. Includes text like '7.9 공무원 경찰직' and '의사/약사가 되는길'.